

남원에서 '가야 기문국' 깨어나다

운봉고원 제철유적, 가야 문화권의 '힘'

가야계적인 기문국(己汶國)이 남원 운봉고원에 처음 존재를 드러낸 것은 1981년이다. 그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공사에 포함된 남원 월산리 가야계 고층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마한과 백제의 영역일 것이라 추정했으나 조사 이후 그 조영주체가 가야로 밝혀지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곽장근 교수(군산대학교 박물관장)는 전북 동부권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세력이 존재했거나 조사 후 그 주체가 기문국으로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경남권에 국한되었던 가야의 흔적이 전북 동부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현재까지도 '남원 월산리 고분군'은 역사적인 장소로 관심 받고 있다.

2010년 '남원 월산리 고분군'은 추가로 진행된 발굴조사로 고고학계의 이목이 또 한번 쏠리게 되었는데, 그 성과는 가히 상당했다. 월산리 M5분에서 중국계 청자인 계수호(鷄首壺)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백제왕의 주요 하사품으로 알려진 최상급 위세품의 하나로 종전에 익산 입점리와 공주 수촌리, 천안용정리, 서산 부장리 등 백제의 영역에서만 나왔다. 또한 신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 출토품과 흡사한 철제조두를 비롯하여 금제 귀걸이, 갑옷과 투구, 기꽃이 등 가야계 위신재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과의 독자적인 외교를 했음을 추정 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토품이다.



그동안 경남권에 국한되었던 가야의 흔적이 전북 동부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현재까지도 '남원 월산리 고분군'은 역사적인 장소로 관심 받고 있다.

금동신발 · 철촉다발 등 가야 문화를 대변하는 다수의 유물이 출토

진행중인 옥계동 제철유적 시굴 조사 결과 따라 객관적으로 역사성 규명할 듯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월산리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라리에도 40여기의 가야계 고층이 무리지어 있는데 2013년 남원 유곡리 및 두라리 고분군 32호분 발굴조사를 통해 무령왕릉 수대경과 비슷한 청동거울을 비롯해 금동신발, 철촉다발, 말뚝, 토기 40여점, 철기 100여점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어 운봉고원이 당시 막강한 세력을 이루었던 가야계의 국가, 즉 기문국이 존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가야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가야의 역사는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

에 유적과 출토된 유물로 이야기 한다. 남원에서 그동안 출토된 양질의 유물들을 통해 전북 동부지역에서의 막강한 세력을 이룬 가야국가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고 더불어 최근 지표조사 결과로 밝혀진 운봉고원 일대 35개소의 제철유적은 그 근거를 더욱 충분히 뒷받침 해주고 있다.

흔히 가야시대는 철의 왕국이라고 한다. 철의 왕국이라고 불렀던 가야의 그 많은 철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바로 이 제철유적에서 찾을 수 있다. 운봉고원 일대 가야 세력의 힘은 바로 이 철이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 한다.

현재 옥계동 제철유적의 시굴조사를 진행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심도 깊은 발굴조사를 통해 더욱 객관적으로 가야의 역사성을 규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3년 김해시, 고령군, 함안군은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렸다. 남원시와 장수군은 고분뿐 아니라 산성, 봉수, 제철유적을 기반으로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Value)를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많은 양질의 유물이 출토된 남원 유곡리 및 두라리 고분군은 사적으로 지정 추진 중이며 중심유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남원시는 앞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많은 연구를 기반으로 제철유적을 중심으로 한 '가야역사유적지구(가칭)'의 2020년 한 정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내일 도립국악원 교류공연 '상·상·상 그리고'

전북도립국악원은 제주도립무용단원이 출연하는 '상·상·상 그리고'가 11일 오후 7시30분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무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상·상·상 그리고'는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과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올해 시작한 교류공연의 일환으로, '익산 백제왕궁'과 '제주해녀'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기념하는 무대.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과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에 앞서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지난 3월 제주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의 선율을 선보인 바 있다.

공연은 제주의 정물춤을 중심으로, '기원무'나 '의식무'처럼 인간의 기원과 사람과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풍요로운 마음을 춤으로 형상화 한다.

1부 '상(上)'의 시작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으로 한국적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태평성대'가 열린다.

궁중정제의 웅장함과 남성의 강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빠르고 활기차게 창작된 '이박무'와 궁중무의 일종인 향발무를 새롭게 창작하여 소리와 춤의 어우러지는 '향발무', 당당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덧입혀 제주도 남성의 힘과 기상을 표현한 '타라훈편무'의 공연이 이어진다.

2부 상(相)에는 가야금의 빠른 음악 반주와 영무새가 지저귀는 분위기를 표현한 '영무새 춤'과 일이 놀이로 승화되어 삶의 애환을 극복해가는 선인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제주놀이'가 펼쳐진다.

이어 옛 사람들의 수줍은 사랑을 형상화 한 '갑돌이와 갑순이'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녀'를 소재로 거센 파도와 싸우고 숨비소리로 표현 되는 창작무용 '해녀춤'을 선사한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복춤과 소고놀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춤으로, 남성을 상징하는 북과 여성을 상징하는 소고의 춤사위에 영혼을 울리는 역동적인 두드림이 제주도립무용단 특유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승화되어 멋과 흥을 더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슬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
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 -

'영원한 저항시인' 윤동주의 삶을 기리며

전주시립합창단,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 14일 소리문화전당서

윤동주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저항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사상범으로 몰린 그는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스물일곱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올해는 시인 윤동주(1917년~45년)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전주시립합창단은 제129회 정기연주회 무대에 그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를 올린다. 14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펼쳐지는 작품은 오페라 음악극으로 전주시립극단 및 교향악단과의 합동공연.

공연은 김 철 전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총감독 및 지휘를, 연출은 홍석찬 전주시립극단 상임연출이, 윤동주 역은 테너 국윤중이, 송몽규 역은 바리톤 오요환이 각각 맡았

다. 작품은 작곡가 이용주 씨가 '서시' '바람이 불어' '십자가' '별 헤는 밤' 등 윤동주 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으로 꾸며진다.

이용주 작곡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착하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서시'로 표현한 윤동주, 그의 자기 반성적인 모습은 지금까지도 별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다"며 "이 작품을 만들면서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라고 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중에서)

그리고 이번 공연을 통해 '별 하나에 윤동주'를 아로새김은 어떨런지. /정해은 기자

"물·불·모래로 신비로운 마술을 보여드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 15일 '알랑가물라 판타지쇼'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레즈 플레이의 마술공연 '알랑가물라 판타지쇼'를 오는 15일 오후 3시와 6시 전주박물관 강당에서 두 차례 공연한다.

알랑가물라 판타지쇼는 코미디 마술쇼를 비롯해 물 마술과 불 마술, 모래 마술, 로프 마술, 신문지 마술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마술의 신비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 마술사와 관람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로 꾸며진다.

코믹 매직쇼는 마술사와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물마술·불마술·모래마술·로프마술·신문지마술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마술의 신비를 전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신나는 음악과 함께 별론쇼를 시작하는 캐리매직 별론쇼는 마술사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캐릭터들을 관객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

정글과 바다 속 동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해니멀 샌드아트쇼'는 오버랩 기법으로 생동감을 보여준다. 이 코너에는 관람객과 함께 하는 퀴즈풀이 시간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이야기로 구성된 마술쇼에 버블쇼 및 레이저쇼가 더해진 '레이저 스토리 버블쇼'는 대형 비눗방울 속에 들어가 보는 '베가 버블', 관객과 함께하는 '포터타임'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을 통해 13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정해은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실천~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검사(8항건강검진,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 임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임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활동 안내

'민원24, (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결과를 전송완료한 것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동 동의서 작성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 대상연령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 : 9세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24세는 다른 국가검진과 중복 불가
검사항목 :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8항건강검진,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추가항목) 매독혈청항원검사, HIV 항체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학교밖 청소년 검진관련 문의 (유선전화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